

## 비유구문의 번역: 언어행위의 비유를 중심으로

이영옥  
(경희대)

## 1. 서론

위엘즈비커(Wierzbicka 7)는 모든 인간이 신체적 구조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조건은 같지만 인간이 현실세계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달라서 각 언어마다 관습, 의식, 신념 등과 같은 문화종속적인 요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연현상조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식물을 지칭하는 단어들 역시 언어마다 다르므로 라이프니츠(Leibniz), 데카르트(Descartes), 파스칼(Pascal) 등 인간사고의 보편적인 개념을 찾으려고 했던 17세기 합리주의 사상가들은 모든 인간은 생래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인 개념의 틀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특히 라이프니츠(Leibniz 430)는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인간사고의 알파벳’이라 칭하였다. 인간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촘스키(Chomsky)에 의해서 계승되었지만 그러한 시도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각 언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다른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문화권에 속하며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배경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비교연구대상이라 하겠다. 나이다와 태버(Nida and Taber 21)는 각 언어마다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분류체계를 구체적인 하위 단계에서 추상적인 상위 단계로 나누어 볼 때, 구체적이며 현시적인 수준에서 멀어질수록 그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보편적인 행위이면서도 가장 추상적인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언어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방법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각 언어의 배경적 문화의 특성과 인지 체계를 반영한 다양한 비유법을 채용하고 있다. 은유로 대표되는 비유법을 사용한 표현들은 서로 다른 비유체계를 가지기 마련인 두 언어 간 번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Newark 104; Hatim and Mason 233; 김순미 106).

본 연구에서는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은유표현의 번역시 한국어와 영어 간 언어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수많은 비유 구문 가운데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비유법의 사용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최대한 극복한 번역의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 2.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한 사물을 끌어다 비교하는 비유법은 크게 직유와 은유로 나눈다. 비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시학』(*Poetics*)에 의하면 은유는 직유를 줄인 것이라고 보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은유는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전이 현상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러한 전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일반적 명칭을 특수 대상에 대한 명칭으로, 특수 대상의 명칭을 일반 대상의 명칭으로, 한 사물에 속한 명칭을 다른 사물의 명칭으로, 혹은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을 서로 바꾸는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Aristotle 41).

생명을 부여받아 코로 호흡하고 음식물을 섭취, 소화, 배설하며 눈, 귀, 입 등 두뇌에 연결된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손발, 팔다리를 가지고 갖가지 행위를 연출하며 지상에서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지영역 중의 하나가 인간의 신체부위라고 할 것이다. 이때 언어에 사용되는 신체관련 용어들은 해부학적으로 세분된 우리 인간의 수많은 세포, 조직, 기관 등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육안으로 인지되고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부위를 지칭하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된다. 인간언어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형태론적으로 더 이상 분화될 수 없는 단음절의 형태를 가지며 인간의 신체 뿐 만 아니라 신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물이나 행동을 지칭할 때 그 모양, 위치, 기능에 따라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언어수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관련 부위는 피, 귀, 눈, 손/팔, 머리, 가슴, 발/다리, 입, 배, 혀, 이 등이다(Andersen 353).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다른 사물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현상을 전이라고 지칭하는데 (Heine 134) 영어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대상의 가장 꼭대기 부분 또는 끝점은 ‘머리(head),’ 가장 낮은 부분은 ‘엉덩이(buttocks),’ 또는 ‘발(foot),’ 열려 있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은 ‘입(mouth),’ 좁은 지역은 ‘목(neck), 팔목(wrist)’과 같은 신체부위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1)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 類(genus) → 種(species): 'There lies my ship.' [→ 'lying at anchor']
- (2) 種(species) → 類(genus): 'Indeed ten thousand noble things Odysseus did.'  
[→ 'many']
- (3) 種(species) → 種(species): 'With blade of bronze drew away the life'  
[→ 'to cleave']  
'Cleft the water with the vessel of unyielding  
bronze'  
[→ 'to draw away']
- (4) 類推(analogy): 'the shield of Dionysus,' 'the cup of Ares,' 'the evening of  
life,' 'life's setting sun,' 'day's old age'

것이다(Heine 137). 특히 ‘눈, 코, 등, 머리, 발’ 등의 신체부위 용어들은 일반적인 방향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며 속담이나 속어적인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이현상은 은유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은유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하이네의 정의를 원용하기로 하겠다.

1. 근원 개념과 목표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2. 두 가지 상이한 경험영역 간에 전이가 일어난다.
3. 전이가 외형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4. 은유가 표현하고 있는 진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이 된다.

예컨대, 내가 돌이라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돌이는 돼지다’라고 한다면 ‘돌이’와 ‘돼지’라는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준 1), 하나는 인간의 영역, 다른 하나는 가축의 영역에 속하고 있으며 (기준 2), ‘같은’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돌이는 돼지같은 행동을 한다’와 달리 외형적으로 전이가 표현되지 않고 있으며 (기준 3), 나는 돌이가 분명히 가축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기준 4).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한 바와 같이 특정 사실을 통하여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기능이라고 할 때 속담은 짧은 문장이나 구를 통하여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우리 언어활동에 수시로 등장하여 마치 사전에 수록된 단어와도 같이 우리의 인지작용의 단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는 다른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속담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이야기가 담긴 문학작품에서와 같은 흥미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간, 생물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언어는 추상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술은 끊임없는 구체화의 과정이라고 할 때, 속담은 단문이라는 극히 제한된 공간 내에서 가장 추상적이고도 보편적인 서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어떤 문학작품보다 현실세계와 관련하여 구체화시키는 언어표현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여기서 구체적인

개념은 공간적 시간적 외연을 가지며 크기, 모양, 색깔, 움직임, 속도 등과 같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데 비하여 추상적인 개념은 ‘알다(perceive), 용서하다(forgive), 소유하다(possess), 결혼하다(be married to), 정부(government), 협박(threat), 교사(teacher)’ 등과 같이 물리적인 특성만으로 기술될 수 없는 대상을 말한다(Leech 180).

심미적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문학작품인 시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로 언어적 사회적 규준에서 벗어난 표현양식이 전경화(foregrounding)로서의 은유이며 구체적인 사물, 현상 등을 통하여 신빙성있고, 사실적이며, 진짜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사건을 묘사함으로써 상징성 또는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문학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대상물의 비유를 통하여 보편적인 진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속담 역시 제한된 범위이지만 이러한 문학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물, 인간, 생물을 동원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심미적인 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법을 활용하기도 하는 바,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원 영역인 비유 대상의 종류와 구문론적, 수사학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비유대상의 종류

##### 1. 자연

###### (1) 날씨

- 가. 공기, 기류, 바람, 계절, 기상, 기후
- 나. 안개, 눈, 비, 서리, 이슬, 구름, 무지개
- 다. 천둥, 번개, 우레, 벼락, 우박
- 라. 자연재해
- 마. 명암

###### (2) 물, 불, 얼음/냉기

###### (3) 육, 해, 공간의 자연대상물--해, 달, 별, 산, 바다, 하늘, 땅, 강, 흙, 모래<sup>2)</sup>

2) 언어표현에 반영된 빈도에 의거하여 물과 불은 지형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가 다양한 신문, 잡지, 방송, 소설, 일반대화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수집한 비

(4) 동물

- 가. 잉태, 양육, 성장, 사망
- 나. 수생동물
- 다. 짐짐승
- 라. 야생짐승
- 마. 조류
- 바. 양서류
- 사. 곤충, 벌레

(5) 식물

- 가. 씨앗, 싹
- 나. 열매, 꽃, 수확
- 다. 토양, 경작
- 라. 나무, 뿌리

2. 인간의 신체부위

- 머리, 머리카락, 목, 눈, 코, 입, 혀, 이, 귀, 얼굴, 손, 발, 팔, 다리, 등, 허리, 발바닥, 손톱, 발톱, 심장, 허파, 배, 위, 간, 쓸개, 내장, 창자
- 3. 음식, 요리, 맛, 냄새
- 4. 농사, 사냥, 낚시
- 5. 여행, 항해, 도로, 운송기구
- 6. 집, 건물
- 7. 의복, 장신구, 천, 실
- 8. 기계, 연장, 물건

---

유표현들 가운데 물을 근원영역으로 한 유형은 한국어는 총 46종, 영어는 42종에 달하였고 불을 근원영역으로 한 유형은 한국어는 21종, 영어는 20종이었다. 반면에 육, 해, 공간의 자연대상물을 근원영역으로 한 유형들은 물이나 불만큼 다양하지 않아 한국어는 17종, 영어는 37종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기서 제시한 수치는 언어자료가 제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사용빈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과 불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사랑, 결혼, 가족관계
10. 언어, 예술 활동, 꿈, 종교, 제사, 신, 운
11. 전쟁, 스포츠, 도박
12. 질병, 의료
13. 삶-죽음
14. 물리적 행위, 동작
15. 의인화

이상에 나열한 다양한 근원영역 가운데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영역은 공기, 바다, 홍수, 폭포, 물, 불, 소리를 내는 동물, 꼬리가 있는 동물, 발성기관과 관련된 신체부위, 식물, 음식, 요리, 여행, 전쟁, 물건, 물리적 행위, 악기나 춤과 같은 예술 활동, 직접인용, 의인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신체부위용어와 의인화, 흐르는 물,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행위 비유표현의 한영 간 번역의 문제를 고찰하여 보도록 할 것이다.

#### 2.1 신체부위용어를 사용한 언어행위 지칭 은유

인간의 신체부위를 어떤 동작의 행위주체로 두는 경우 마치 그 특정 신체 부위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제 그 신체부위의 소유자인 인물 자신으로부터는 덜어 주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Of Mice and Men*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은 바로 레니(Lennie) 본인보다는 그의 손이 자발적으로 그 여자의 입과 코를 덮는 것이므로 레니 자신이 이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She screamed then, and Lennie's other hand closed over her mouth and nose.

신체부위는 은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원영역에 해당되며 특히 언어행위

의 비유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입과 귀를 사용하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추상적 언어행위를 지칭할 때 신체부위를 근원영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발성 기관인 혀, 입, 입술과 청각을 관장하는 귀가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혀:

[속담]

Deep sorrow has no tongue. // Keep not two tongues in one mouth. //  
Let not your tongue cut your throat. // Long tongue, short hand. //  
Kind words don't wear out the tongue. // Man cannot control the  
tongues of others. // No sword bites so fiercely as an evil tongue. //  
One tongue is enough for two women. // The effect speaks, the tongue  
needs not. // The tongue breaks bone, though itself has none. // The  
tongue can no man tame. // The tongue is not steel, yet it cuts. //  
The tongue of idle person is never idle. // The tongue wounds more  
than a lance. // The wise man has long ears and a short tongue. //  
To speak kindly does not hurt the tongue. // Turn your tongue seven  
times before talking. // We cannot control the tongues of others, but a  
good life enables us to despite calamities. (18중)

[일반언어]

She has a sharp tongue. // acid-tongued people // That lawyer is such  
a silver-tongued orator. // That politician always speaks with a forked  
tongue; he makes promises during the campaign, but once he's elected, he  
breaks them. // Emily has a loose tongue. // I urge you to keep a  
civil tongue in your head when you meet my parents. // When my  
father finds out that I wrecked his car, he's really going to give me a  
tongue-lashing. // If he arrives late one more time, I'm going to give  
him the rough edge of my tongue and then he'll be sorry for his

---

3) 정희자(2004)에서도 영어에 나타난 신체비유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발성기관으로서의 mouth, tongue, lip, ear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tardiness. // He becomes tongue-tied. // What's the matter? Have you lost your tongue? Why don't you answer my questions? // I was so shocked by the news that for several minutes I was speechless. Finally I found my tongue and was able to ask some questions. // I asked you a simple question. Why don't you answer? Cat got your tongue? // It was on the tip of my tongue to ask Helen if she needed a ride to the party, but then it occurred to me that she might not have been invited. // a slip of the tongue // He sometimes makes tongue-in-cheek complaints about his wife, but he's really very devoted to her. // During the campaign, promises roll off that politician's tongue, but he has no intention of fulfilling them after he's elected. // Such an expressive language, don't you think, dear? It comes off the tongue like honey. (17종)

입:

[속담]

Keep your mouth shut and your eyes open. // Keep your purse and mouth close. // When the wish is there, the eyes can say as much as mouth. // Many give with their mouths, and not with their hands. // Mouth of honey, heart of gall. // Mouth shut and eyes open. // Nearest the heart, nearest the mouth. // Out of the mouth comes the evil. // A shut mouth keeps me out of strife. // Slanders by many mouths can melt a metal. // The mouth and the purse shut. // The wise hand doeth not all that the foolish mouth speaks. // He that would stop everybody's mouth needs plenty of flour. (13종)

[일반언어]

The candidate mouthed a lot of hollow, demagogic, nationalistic slogans, but he didn't say anything of substance. // He has such a big mouth. // You and your big mouth! // They have loose mouths. // Last night he was shooting off his mouth about the affair. // He's just a mouthpiece for the local store-owners. // That's precisely what I was going to say! You took the words out of my mouth. // You're putting words into my mouth. (8종)

입술:

[속담]

You cannot close other people's lips. (1종)

[일반언어]

Before the warning had passed my lips, the lion leapt on him and devoured him. // His tight-lipped response to the policeman's questions saved his friend from being arrested. // You know where the money came from, but you'd better button up your lip when the investigators come or we'll all be in a lot of trouble! // I won't betray your secret. My lips are sealed. // loose-lipped friends // The martyr died with a prayer to God on his lips. // All the employees hung on the lips of the boss when he began to discuss their salary increase. // He's a notoriously uncooperative student. He never does his assignment and he gives all his teachers a lot of lip. // I know it's cold and wet down here in the coal mine, but try to keep a stiff upper lip; complaining won't make anything better. (9종)

귀:

[속담]

A hungry belly has no ears. // If your ear burns, some one is talking about you. // In at one ear and out at the other. // It is bad preaching to deaf ears. // The truest jests sound worst in guilty ears. // The wicked ears are deaf to wisdom call. // Walls have ears. (7종)

[일반언어]

News of your life has reached my ear. // When my brother told me that he had a clever scheme that would earn us both a million dollars, I was all ears. // It has come to my ears that you're planning to go abroad next year. // If you'll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I'd like to tell you about our company's new product. // I know you only telephoned to hear about my vacation plans, but as long as I have your ear,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new job. // Our radio advertisements gain the listener's ear by making wonderful promises. // I finally won my supervisor's ear. // He pricked up his ears as soon as I mentioned

the salary. // I begged the judge to reconsider his decision, but he turned a deaf ear to my pleading. // My request for a salary increase fell on deaf ears. // All the new words I hear just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11종)

영어의 경우처럼 한국어에서도 발성기관인 입, 입술, 혀, 그리고 청각기관인 귀와 같은 신체부위용어를 사용하여 언어행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만큼 다양하지는 못하다. 다음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혀: 혀를 잘못 놀리다 // 혀를 깨물다 // 혀를 내두르다 // 혀 꼬부라진 소리 // 혀를 끝끝 차다 // 혀 짧은 소리를 하다 (6종)

입: 입방아를 찧다 // 입이 거칠다 // 입이 싸다 // 입이 무겁다/가볍다 //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밝히다 // 입도 뺨갓 하지 않다 // 입 꼭 다물고 있다 // 입바른 소리 // 입에 발린 소리 //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 (11종)

입술: 입술을 달짝거리다 // 입술을 깨물다 (2종)

귀: 귀를 쫑긋 세우다 // 귀에 못이 박히게 듣다 // 귀가 따갑다 //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 귀가 뚫리다 // 귀동냥하다 // 귀를 막다 // 귀를 기울이다 // 귀에 쟁쟁하다 //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귀가 얇다 // 서울시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쇠귀에 경 읽기 // 벽에도 귀가 있다 (14종)

영어와 한국어 모두 혀, 입, 입술, 귀 등 발화행위와 관련된 신체부위를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근원영역으로 사용하는 점은 같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를 형용사나 전치사구를 통하여 수식하는 구조이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관계자의 입,’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다,’ ‘쇠귀에 경읽기’ 등의 경우에만 수식구조가 사용되고 기타의 예에서는 모두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는 발화행위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신체부위 명사들을 중심으로 ‘the, no, all, two, your, my, his, the listener's, my supervisor's’ 등과 같은 관사, 수량사, 소유격 형용사뿐만 아니라 입(mouth)의 경우에는 ‘shut, foolish, big, loose,’ 혀(tongue)의 경우에는 ‘long, evil, short, evil, sharp, acid, silver,

forked, loose, civil,' 입술(lip)의 경우에는 'tight, loose, stiff' 귀(ear)의 경우에는 'deaf, wicked, guilty' 등과 같은 일반 형용사들이 다양하게 각각의 신체부위들을 수식하는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주명사를 수식하는 한정형용사의 형식은 아니지만 '입'의 경우 '입이 싸다, 거칠다, 무겁다, 가볍다'와 같이 서술형용사를 사용하여 발화행위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영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영어와 판이하다. 표현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영어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속담과 일반 문헌들을 통하여 수집한 총 84종의 발화관련 신체부위를 사용한 비유표현 중 혀는 35종 (41.7%), 입은 21종 (25%), 입술은 10종 (11.9%), 귀는 18종 (21.4%)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총 33종 중 혀는 2종 (6.6%), 입은 11종 (33%), 입술은 6종 (18.1%), 귀는 14종 (42.4%)로 조사되었다. 즉, 발화와 관련된 네 가지 신체부위 가운데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입과 귀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혀와 관련된 표현이 다양한 형용사와 함께 발화행위 비유표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혀를 가장 중요한 발화행위 관련 신체부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성기관이 아니지만 언어행위 비유법에 중요한 근원영역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신체부위가 바로 눈으로 눈이라는 신체기관 자체보다는 눈의 기능인 '보다, 보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한국어:

- 는 것으로 보이다/보다 // -민족주의 잣대로만 보지 말라 // ... 우려 된다고 재해당국이 밝혔습니다 //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밝히다 // 계속 참배할 뜻을 내비치다 // 상황에 따라 급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신각도 나오고 있다.

영어:

He indicated his willingness with a nod of his head. // Your essay fails to show a detailed knowledge of the novel.

## 2.2 의인화

다양한 언어행위 자체를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동하는 형식으로 의인화하는 비유법은 그 빈도나 종류에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월등하게 많고 다양함이 관찰되었다. 영어는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무생물을 타동사구문의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ccent*, *agreement*, *alert*, *announcement*, *argument*, *complaint*, *description*, *discussion*, *insult*, *lie*, *mention*, *news*, *phrase*, *proposal*, *proposition*, *refusal*, *remark*, *reply*, *report*, *scandal*, *scream*, *speech*, *stammer*, *statement*, *word*, *writing*, *yelp* 등 언어행위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사가 타동사구문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sup>4)</sup>

언어행위지칭 명사를 주어로 한 영어의 의인화 구문

- Her accent argues her to be a foreigner.
- The agreement would gradually return ethnic Albanian children to state school facilities.
- Thursday's bomb alert near Paris sent European stock markets lower, hit the dollar and boosted gold.
- The announcement of the fall in profits sent the company's share price

4) 동명사구문의 형태로 언어행위를 주어로 표현한 다음과 같은 예들도 영어의 전형적인 표현예들이다.

- Powerful advertising can convince her I wasn't going to harm her.
- Hearing that had created in Willy Jack an intense interest in his own fingers.
- She said experience shows simply threatening legal action gets good result in forcing an offending government to comply with EU law.
- Sharing ideas and stories can help us develop a framework to help support caregivers in crisis.
- But offering help to a man can make him feel incompetent, weak, and even unloved.
- Saying those words had shocked me into semiwakefulness.

plummeting. // The announcement at first struck Andrew's father speechless.

--Arguments conducted through e-mail frequently lead to a breakdown in human relationships.

--Her constant complaint drove him to desperation.

--His description of abortion as "a terrible offence against God and humanity" produced an outraged response from the audience.

--Any discussion of politics would spell disaster.

--Almost everything he said struck me as absurd,

--The insult left me speechless.

--Nixon's lies won him a second election, but then he lost the country.

--But the mere mention of the children brought tears to my eyes.

--News of the disaster stunned people throughout the world. // The news surprised everyone.

--You will learn how the phrases "could you" and "can you" turn off men and what to say instead.

--Clinton's proposal would provide tax incentives for businesses to hire people from these areas.

--So how does my proposition strike you?

--Her refusal occasioned a lot of trouble.

--The extra little remark will keep the conversation going. // Clinton's remarks left open some tantalizing possibilities.

--His reply left me with the sense that we would never reach agreement.

--My report may strike some people as pessimistic.

--The scandal created quite a stir at the time.

--A faint crash and a muffled scream stopped one sentence and started another.

--His speeches fermented trouble among the workforce. // The speech impressed the audience. // The bishop's speech has prompted an angry response from both political parties.

--His stammer predisposed him to avoidance of company/to avoid company.

--An official statement from India said that the strikes would continue until "our defence forces reoccupy our territory."

--A thoughtless word cost me a friend. // His words offended me.

-- . . . how your writing will strike the reader.

-- . . . the yelp that came out of her mouth struck the others as completely out of character.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추문은 그 당시 대단한 소란을 가져왔다’ 등과 같이 ‘거절, 거짓말, 글, 논의, 대답, 말, 발표, 선언, 소식, 언급, 언질’ 등 영어의 구문과 상응하는 몇 가지 언어행위표현들은 타동사의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영어의 경우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예컨대, 다음의 비교 예에서 보듯이 영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번역보다는 한국어에서는 명사로 표현되었던 언어행위표현들을 적절한 동사를 동반한 부사절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Her accent argues her to be a foreigner. ?그 여자의 말투는 그가 외국인이라고 주장한다. / 그 여자는 말투로 보아 외국인임이 분명하다.

--But the mere mention of the children brought tears to my eyes. ?그 아이들에 대한 조금의 언급이 내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 그 아이들 이야기만 하여도 눈물이 났다.

### 2.3 언어행위를 기술하는 영어의 비유

일반적으로 언어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를 기술하는 비유방식도 달라지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기본인 언어의 기능을 도관에 비유하여 (1) 신체의 구체적인 발성부위인 입과 청음부위인 귀를 통하여 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transfer), (2) 말과 글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단어들 안에 집어넣고 (insert), (3) 단어들은 그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전달 작업을 완수하며, (4) 듣거나 읽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 단어들에 담긴 생각과 느낌을 다시 빼낸다(extract)는 기본적인 과정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Try to get your thoughts across better. // None of Mary's feelings came through to me with any clarity. // You still haven't given me any idea of what you mean. // Whenever you have a good idea practice capturing it in words. // You have to put each concept into words very carefully.

// Never load a sentence with more thoughts than it can hold. // That thought is in practically every other word. // That remark is completely impenetrable. // Whatever Emily meant, it's likely to be locked up in that cryptic little verse forever.

여기서 언어를 통한 전달물인 생각은 유행, 음식, 물건 등의 근원영역 요소들을 통하여 비유되며, 의사소통 행위는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 인도하는 행위, 보이는 행위로 비유된다. 언어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나 생각, 느낌, 믿음, 이해 등에 관한 비유도 언어행위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 바, 마음은 물건을 담아두는 용기(容器)로, 생각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이해는 포착하는 행위로 비유하고 있다. 언어행위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무기로 비유되기도 한다.

## 2.4 한국어 언어행위의 은유

한국어에서도 여러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언어행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근원영역의 종류와 의미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다.

### 1. 공기와 같이 확산됨

소문이 돌다/퍼지다/무성하다 //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자' 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 2. 흐르는 물

논의가 본의와 다르게 흘러가다 // 말이 청산유수다 // 스카우트설이 끊이지 않았었다 // 한반도를 향해 밀려드는 거대한 파도의 성난 고향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만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다 // ... 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의견이 넘치고 있다.

(욕설을 퍼붓다 // 독설을 퍼부었다 )

### 3. 가) 소리를 내는 동물



놀라운 맛에 포효하는 안재환 // 깡마른 언어를 분출하면서 밀립의 살캉  
이처럼 카랑카랑 짓어대는 사육된 듯한 인간들이라는 // 돼지 먹 따는  
소리

나) 꼬리가 있는 동물  
말꼬리 잡다

#### 4. 식물

가시 있는 말을 주고 받으며 얼굴을 붉혔다 // 가시 돋힌 말 // 말이  
씨가 된다

#### 5. 음식, 요리

사탕발림 // 삶은 호박에 이도 안들어갈 소리 // 말 속에 뼈가 있다.  
// 육설을 뺏다 // 걱정을 토해내다 //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  
나는 그동안 왜 전화를 안했느냐고 물으려다가 하나하나한 말인 걸 알고  
는 그 말을 삼켰다 // 회사 안팎에선 ‘산부인과 출신 CEO가 회사를 망  
해 먹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 쓴소리를 쏟아냈다.

#### 6. 여행

...라고 발뺌하다 // 유 실장은 이런 도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7. 전쟁

국내정치를 겨냥하다 // 화살을 돌리다 // 대일비판을 인기회복책으로  
몰아붙이다 // 야당보고 싸우라고 독전하는 듯하다 // ...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 논리적으로 밀리다 //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  
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대화의 場으로 끌어  
내기 위한 마지막 말의 攻勢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시 김정일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걸 보면 미국은 내  
심 6자회담의 成事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  
이다. //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다 // 법률적 갑론을박을  
되풀이하다 // ‘우리 회사는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고 폭탄 발언을 하며  
// 사건을 터뜨리다

## 8. 물건

가) 말에 내용이 담겨있고 말하는 것은 포장된 것을 풀어내는 일

빈말 // 이야기를 풀어내다 //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 얘기를 털어 놓다 // 부시의 발언에 담긴 뜻 // 까놓고 이야기하다 // 얼마 전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최고의 외교관은 대통령이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나 방침을 집행할 뿐”이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이 말에도 절반의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나) 들거나 쉬거나 쏘거나 꼬거나 부풀리거나 더할 수 있는 물건

경제발전을 들먹이다 // -하고 말을 쉬다 // 고언을 쏘아내다 // ...이라는 놀림이 쏘아지다 // 비판을 쏘아내다 // 거침없이 쏘아내다 // 당직자들은 “이럴 수가...”라는 탄식을 쏘아내며 // ...라고 덧붙이다 // 부풀려진 낭설 // 원시성을 못벗어난 주거상황을 비꼬다 // 대사가 꼬이다

다) 바가지, 못, 낙인

바가지를 긁다 // ...다고 못박다 //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을 근본주의로 낙인찍는 세태를 꼬집었다. // 두 군데의 직장에서 부적응자로 낙인찍힌 그는 ...

## 9. 물리적 행위

...라고 잘라 말하다 // 딱 부러지게 말하다 // 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친미 파로 (점) 찍히다 // 주장을 펼치다 // 여죄를 캐다 // ..여부를 캐묻다 // 굳이 이런 것을 파헤쳐야 하느냐 // 일본대사관에서는 놀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 사 건을/문제를 일으키다 // 기자가 짚어보다 // 당시 지진해일을 되짚어 보다 // 작업의 비결을 문자 망설임 없이 ‘학교 수업’을 꼽는다 // ...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이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라고 부르며 깎아 내렸다. // 버블 붕괴론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란 지적이 일고 있다.

## 10. 직접인용

“취취”하다 // 뻑 하면 소리를 지른다 // 눈 가리고 “이웅” 한다. // 도둑이 “도둑이야!!” 한다. // “설마”가 사람 잡는다. // “의욕만 앞섰지, 현실을 모른다” “큰소리만 친다”는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다. // 맛있

어. 번테기는 “저리가라”야. // “왔다”예요. // “걸음아 나 살려라”하고 도망간다 // “나무에 오르라” 하고 혼든다. // “꿈이야 생시야” 하다 // 장안의 “내노라” 하는 쟁쟁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 “오냐오냐” 하고 받아 주니 어른 상투 끝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구나. // 경북 영천의 4.30 국회의원 재선거 초반 판세를 놓고 21일 여야는 동시에 “어!”하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열린우리당은 “어! 우리가 이기고 있다니”하는 놀라움, 한나라당은 “어? 지고 있다니”하는 당혹감이었다. // “묻지마” 청약 // 니가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마...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어행위를 음식, 눈에 보이거나 꺼낼 수 있고, 주고 받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공통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근원영역을 사용한 은유법이라도 한국어와 영어는 그 구체적인 표현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번역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공히 사용되는 은유표현 가운데 ‘흐르는 물’로서의 언어행위 표현과 직접인용구문을 중심으로 번역의 문제 일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언어행위 은유표현의 번역

#### 3.1 ‘흐르는 물’로서의 언어행위

언어행위는 한국어와 영어 공히 흐르는 물이나 공기처럼 확산되는 대상으로 보는 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흐르는 물의 여러 요소들을 근원영역으로 한 은유를 언어행위 표현에 사용한 영어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1)과 같이 출발언어인 영어와 그대로 대응되는 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의 예들처럼 단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영어구문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근원영역의 용어이지만 영어와 동일한 품사로만 표현되지 못하므로 명사를 추가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 (1) a. The conversation drifted aimlessly. 대화는 목적도 없이 표류하였다.  
 b. Their voices are spilling through the lecture hall. 그들의 목소리가 강의실 밖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2) a. Enquiries flooded in from all over the world. 세계 각지에서 문의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b. They felt inundated by the barrage of ads. 그들은 광고의 홍수에 휩쓸려버린 기분이었다.

(2)의 영어 구문에서는 'flood'나 'inundate'가 각각 동사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어 번역에서 영어에 대응하여 '범람하다' 정도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즉, '범람하다'라는 동사는 실제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할 경우에 국한되어 사용될 뿐 비유로 사용되는 것은 어색하다. 여기서 은유로 사용되는 근원영역의 용어들은 적어도 추상적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목표영역의 개념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범람하다'라는 용어는 홍수와 관련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사용빈도수도 낮다는 점에서 은유의 근원영역으로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 (3)의 예들은 영어은유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에서 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은유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적절한 예라고 하겠다.

- (3) a. Rumors swirled for weeks over its possible conclusions. 그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들에 관하여 여러 주 동안 갖가지 소문들이 ?소용돌이쳤다. // ... 나돌았다. / 무성하였다. / 난무하였다.
- b. Jamie suggested getting my name splashed in gossip columns by dating a celebrity. 제이미는 제안하기를 내가 유명인사와 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십란에 내 이름이 ?흩뿌려지면 어떨까 하였다. // ... 등장하게 되면 // 오르게 되면 // 오르내리면

즉, ‘소문이 나돌다/무성하다/난무하다’ 또는 ‘가십란에 이름이 등장하다/오르다/오르내리다’ 등과 같이 한국어에서 이미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유표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영어식의 다른 은유표현으로 바꿀 경우 매우 생소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구문의 이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은유의 원래 목적이 보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표현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자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는 은유의 본기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언어행위를 물에 비유한 다음 영문의 예들의 경우 발생하는 번역의 문제는 이상의 경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 (4) a. We can hear a soft rolling ocean of voices. 잔잔한 바다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 b. The tide of public opinion is moving towards tighter planning controls. 여론의 물결은 기획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c. A perfect torrent of information burst on them. 정보가 폭포처럼 그들에게 쏟아졌다.

### 3.2 직접인용문을 사용한 언어행위의 비유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나열한 이상의 발화행위의 비유 가운데 한국어에서는 직접인용문을 그대로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 예들은 영어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사항이다. 영어에서는 “The answer was a resounding yes!” 또는 “Her answer was a whispered, "Yes.”” 등으로 직접인용문 자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식어를 덧붙이는 형식을 사용하는 예는 발견할 수 있었으나 직접인용문을 비유로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종결어미가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실제 사용된 종결어미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현실감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인용문을 사용하여 비유하는 방식이 매우 자주 사용됨을 볼 수 있거니와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특히 자주 쓰인다. 다양한 종결어미는 실제 대화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연령, 성별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기사체에서는 종결어미를 중립적인 ‘다’로 통일하고 있으나 기사제목의 경우 실감을 주고 주목을 끌기 위

한 방법으로 다음 예와 같은 인용문이 자주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КСІ

- (5) ㄱ. “인권위, 北 공개 총살엔 왜 말없나”  
 ㄴ. ‘반갑다! 크낙새’  
 ㄷ. 與 “와! 영천이...”  
 ㄹ. 野 “어? 영천이...”  
 ㅁ. 관광객 人山人海... “장군님 고맙습니다”  
 ㅂ. 미숙아 병원비 - 치료비 정부지원 늘었지만 퇴원하면 ‘더 이상 안돼!’

한국어에서는 청자와 갖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문장종결어미가 다양하게 변화되므로 청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구어체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문어체는 종결어미의 구조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신문기사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구어체의 이러한 인용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3.3 은유표현 번역의 문제

여기서 비유표현구문과 관련한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의 문제는 단순히 비유로 사용된 근원영역의 차이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휘의 분포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기본형식과 구조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 또한 두 언어 간의 번역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목표언어의 문법적 수사적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발언어의 의미론적, 화용론적, 텍스트론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번역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번역의 기초단계로 한국어와 영어 간 발화행위에 관한 비유 표현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았다는 데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는 비유 표현법에 큰 차이가 있다. 언어행위는 은유가 사용되는 목표영역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한국어에서는 영어만큼 신체부위 용어를 활용한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영어보다 훨씬 다양한 목표영역을 활용한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직접 인용구문들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청자, 화자 및 문장 내 등장인물들 간에 상호 연령, 성별, 사회적 위치, 친소관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문장종결어미의 형태에 반영되는 한국어의 특징을 활용한 매우 효과적인 비유법이라 할 수 있다. 영

어와 달리 상대방에 따라 종결어미를 달리하는 구어문장표현을 하나의 비유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실제 발화가 이루어지는 극적인 상황을 연상시켜 주어 구체적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은유수사법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두 언어 간의 차이를 극복한 번역은 의미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목표언어의 언어특성에 맞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전혀 다른 문법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출발언어인 영어에 모두 정확하게 대응시키기는 힘들므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비유는 특히 그 언어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거니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유의 정확성보다는 비유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티(Hatim 182)은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비유 특히 은유표현의 번역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나 소설과 같이 서정적(expressive)이거나 수사적인 표현방식 자체가 장르의 성격과 의의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출발언어에서 사용된 은유 표현들을 최대한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전달이 주된 목표인 텍스트의 경우라면 목표언어의 체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은유표현은 아예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두 언어의 자체적인 비유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비유표현의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목표언어와 출발언어 간 공통된 비유방식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번역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유표현에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둘째, 출발언어보다 목표언어의 비유표현이 더 다양한 경우로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첫 번째 경우보다는 이상적이지 못하나 번역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목표언어의 다양한 표현방법 중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목표언어보다 출발언어의 비유표현이 더 다양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출발언어의 모든 비유표현들을 그대로 옮기기가 힘들므로 목표언어로 번역할 때 새로운 비유표현들을 창출해야 한다. 이때 어떠한 비유표현들을 창출하는가 하는 것은 목표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비유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색해야 할 문제이므로 번역에 앞서 먼저 목표언어의 기존의 비유법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 언어행위 비유법을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발언어와 목표언어의 각 언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올바른 번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표현에서 직유거나 은유거나 비유란 화자나 필자의 의도한 바를 더욱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수사법인 바 내재적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출발언어에서 사용한 비유법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보다는 목표언어에 맞는 비유법으로 치환하는 편이 이해를 돕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유법의 다양한 표현은 그 언어사용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내재적 의미와 함께 외적인 표현방식으로 표출되는 출발언어의 특성을 전달하는 것을 번역의 목적으로 삼을 경우라면 어느 정도 출발언어가 사용한 비유법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도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운율과 비유법 자체가 심미적인 차원에서 작품성을 결정하는 시나 소설 등의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출발언어의 비유표현들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목표언어의 비유표현들도 더 풍부해지고 새로운 비유법들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와 같이 양 언어의 구조적 특성상 서로 대응되지 못하는 경우는 최대한 목표언어의 구조에 맞추어 출발언어의 독자들이 받았던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번역작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이질적인 문화 간의 교류가 더욱 진행되고 나면 세계어인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유표현이 더욱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은유표현과 관련된 번역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3(2): 81-112.
- 이영옥. 2002.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3(1): 59-81.
- \_\_\_\_\_. 2006. 「한국어와 영어간 발화행위 표현방식의 차이」, 『담화와 인지』 13-3.
- 정희자. 2004. 『담화와 비유어』. 서울: 한국문화사.
- 최근학. 1971. 『영어속담사전』. 서울: 신일인쇄사.
- Andersen, Elaine S. 1978. "Lexical universals of body-part terminology." In: Greenberg, *Universals*, Vol. 3, pp. 335-68.
- Aristotle. 1997. *Poetics*. [an unabridged republication of S. H. Butcher's translation of the Poetics as originally published by MacMillan and Co., London]. Mineola: Dover Publications.
- Cassirer, E. 1944. *An Essay on Man*. New Haven, Conn.: Yale UP.
- Foster, John. 1998. *Effective Writing Skills for Public Relations*. London: Kogan Page.
- Fowler, Roger. 1977. *Linguistics and the Novel*. Methuen.
- Grace, George W. 1987. *The linguistic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The Cresset P.
- Greenberg, Joseph. 1963.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IT P.
- Hatim, Basil.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London: Longman.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9.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Hawkes, Terence. 1972. *Metaphor*. Methuen.
- Heine, Bernd.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P.
- Kosofsky, David. 1990. *Language From the Body*. 서울: 외국어연수사.
- Kövecses, Zoltá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 of Chicago P.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 of Chicago P.
- Leibniz, Gottfried Wilhelm. 1903. *Opuscle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Paris: Louis Couturat.
- Leech, Geoffrey and Michael H. Short. 1981.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London: Longman.
- New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Nida, Eugene A., and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Verschueren, Jef. 1999. *Understanding Pragmatics*. London: Arnold.
- Wierzbicka, Anna. 1992.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Universal Human Concepts in Culture-Specific Configurations*. New York: Oxford UP.
- Yngve, Victor H. 1986. *Linguistics as a Science*. Bloomington: Indiana UP.

K C I

[Abstract]

**Transla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s:  
Focused on Constructions for Speech Act**

Lee, Young-Ok  
(Kyung Hee University)

It is a crucial step before starting to translat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two languages in terms of various aspects of language structure and cultural background.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English is especially inspiring and rewarding for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purposes as the two languages are in diametrically opposite position in language structure and cultural background. Metaphorical expressions reflect differences of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in comparing two language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dequate translation and successful communication.

This study analyzes Korean and English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speech act and classifies the difference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their source domain. Both languages use expressions for food and physical things to show, grasp, manipulate, possess, and even fight with as a source domain of speech act. The significant difference unique in Korean metaphorical expressions is in the use of flowing water or spreading air as important source domain elements for speech act. This may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Korean culture that sees activities and events as a kind of natural and spontaneous development of serial phases that constitute the whole activities and events. Korean language also makes use of direct forms of speech act as an effective way to enhance its perceptibility.

▶Key Words: metaphorical expression, speech act, source domain, target domain, foregrounding

이영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 교수

관심분야: 한영구문비교번역, 문화간커뮤니케이션

연락처: yolee@khu.ac.kr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

K C I